



정미연 소화테레사 作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마르 10,51)

다시보기

요즘 ‘TV 다시보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의 목적은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했거나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의 목적을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정보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다시보기’ 기능을 우리의 삶에서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뿐만 아니라 신앙에서도 따분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분함을 느끼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일상에서나 신앙에서 새로움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늘 봐왔던 것이나 나의 생각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들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즘, ‘다시보기’를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보기’를 오늘 복음의 바르티메오의 상황을 통해 배우면 좋겠습니다.

바르티메오는 어떤 이유에서 눈먼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기회가 왔고 다시 보기 위해 예수님께 간절히 외치며 자신의 모든 것과는 같았던 겹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볼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가거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바르티메오는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처럼 “나를 따라라.” 하지 않으셨음에도 그는 제자처럼 예수님을 따라나섭니다. 그 이유는 눈이 멀었을 때 자신이 생각만 했던 화려하고 권력의 정점에 있어 도저히 자신과 어울릴 수 없는 “다윗의 자손”이 아닌, 소박하고 자신과 별반 다르지 않은 군중과 함께 어울리며 인자한 모습을 보이시는 새로운 “다윗의 자손”을 “다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거라.”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나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바르티메오처럼 우리의 삶과 신앙을 다시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보기 위해서는 우선 바르티메오처럼 모든 것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기준, 선입견과 판단들을 겹옷 벗어 던지듯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삶과 신앙에 대해 눈먼 상태가 되었을 때 간절히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예수님께서서는 분명 우리가 다시 볼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된 우리의 눈은 새로움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문제아에게서 놀라운 재능이, 끈대에게서 지혜로움이, 미운사람에게서 사랑스러움이, 죄 많은 사람에게서 용서가, 불의한 세상에서 하느님의 정의가, 고통의 십자가에서 부활의 영광이, 보잘 것 없는 나에게도 구원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보게 된 눈으로 더욱 선명하게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다시보기”를 사용하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필름**



김민수 레오 신부 | 대구시교육청가정형Wee센터장

신천지를 탈퇴한 어느 집사의 이야기 1

(2018.7.17자 기독교포털뉴스, 정윤석 기자의 “탈퇴자의 눈으로 본 신천지의 실상”에서 발췌)

조현권 스테파노 신부 | 교구 사목국장

수민, 신천지에 들어가다.

20××년 겨울, “수민아, 신천지로 와서 말씀 들어야 산다. 지금 학교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계시의 시대가 열렸는데 지금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거부하면 지옥 밖에 없다.”는 엄마의 말에 이끌려 수민(가명, 35세)은 신천지 신학원을 찾았다. 온 가족이 신천지에 매료됐지만 수민은 신천지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기계처럼 재수강을 하다가 한 강사를 만나면서 머릿속에서만 곁돌던 신천지 교리가 재조합이 되며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었다. 신천지 교리를 되풀이해서 배운지 3년째에 접어들어서였다. ‘새언약의 사자’, ‘약속의 목자’(=이만희)를 붙들고 이 시대를 달려 역사를 이뤄야만 한다는 사명감이 비로소 움텄다.

이때부터 수민은 청년 구역장부터 시작해, 부서 전도팀장, 전도교육 교관, 교회 전도대, 총회 사무실, 센터 전도사까지 20대의 청춘을 신천지에 송두리째 바쳤다. 신천지교회에 상주했고 직장이 끝나면 바로 복음방으로 출근하다시피 했다. 제대로 밥을 먹을 시간이 없어 빵으로 간단히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허다했다. 수민은 강사들이 전하는 “너희도 독립투사들처럼 그렇게 살아라. 밥을 못 먹고, 풀뿌리만 먹더라도 말씀을 전하라. 선생님도 청도로 낙향하셨다가 과천으로 올라 오셨을 때 돈이 없었다. 이 때 풀뿌리만 캐서 먹더라도 이 말씀은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전하셨다.”는 말씀을 가슴에 새겼다.

신천지 신도들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찾아 하나님의 한을 풀기 위해 목숨을 거는 독립투사라는 정신무장이 돼 있었다. 센터에서 전도사를 할 때는 24시간 비상체제였다. 섭외자가 센터에 들어오면 그를 관리하는 인도자로부터 늘 보고를 받았다. 인도자가 즉각 문제가 생겼다고 담당 전도사에게 보고하면 수민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바로 출동했다. 섭외자의 집 앞에 대기하며 ‘얼굴 한번이라도 보고 얘기하자고’, ‘말씀에서 어긋난 게 있으면 내게도 알려달라’고, ‘한번만 만나달라’고 애걸하다시피 했다.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라도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탔다.

지파별로 전도 인원을 보고하고 모두 실적을 올리는데, 실적이 좋지 않으면 담임강사가 큰 창피를 당하고 벌 받고 총회장에게 꾸지람을 듣는 시스템이었다. 항상 지파별로 1등을 하기 위해 이달의 목표 전도 할당량을 채워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센터에 들어온 인원 또한 놓치면 안되었다.

추수꾼 전도를 한창 진행하던 시절에는 추수할 교회로 들어가서 신도인 척 생활했다. 경기도 분당의 유명한 교회의 청년부에서 생활한 적도 있다. 200×년 당시, 신천지는 주일 정규집회를 오후 3시에 진행했다. 오전까지 다른 교회에서 추수활동을 하라는 의미였다. 성도의 대부분이 추수꾼으로 추수밭 교회를 정해 나갔다. 오전에 정통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엔 신천지로 가서 추수꾼 보고서를 작성했다. 목사님의 설교 본문과 설교 내용을 써냈다. 그리고 교리적으로 틀렸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써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주일 오전예배를 드릴 때면 목사님의 설교를 꼼꼼히 받아 적었다. 이를 본 정통교회 신도들은 ‘정말 말씀에 대한 열정이 뜨겁다.’고 수민을 오해했다. 그러나 ‘비유꼴이를 하지 않으면 말씀 자체가 아니다.’라고 이미 마음에 벽을 쌓은 신천지 신도들에게 목사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릴 리가 없었다. **▶**

성모 공경 행사를 시작하다



성모당이 만들어진 후 많은 신자들이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성모당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소문이 나자 더 많은 신자들이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톨릭신문에 재미난 내용이 실린 적도 있습니다.

성모당엔 언제나 신자들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그만큼 기도의 행렬이 많다는 말이다. 가난한 신자 한 분이 무엇인가 간곡히 기도하고 있었다. 어쩌나 간절했던지 그의 기도 소리가 나지막이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까지 들렸다. “성모님, 아이들이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 종일 굶었는데도 라면 하나 끊어줄 형편이 못 되는군요. 내게는 단돈 만 원 한 장도 없답니다. 성모님, 간곡히 비오니 제게 만 원이라도 우선 벌 수 있게 은총 베풀어 주소서…….” 그러자 옆자리에서 기도 하고 있던 돈 많아 보이는 신자 한 분이 얼른 돈 만 원을 지갑에서 꺼내 주며 “자, 여기 있소, 돈 만 원, 그러니 제발 성모님께서 그런 사소한데까지 신경 쓰시도록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홀로 와서 기도했지만 점차 함께 기도하는 곳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각종 행사가 성모당에서 이루어졌고, 신자들이 성모당에 모여 성모 행사를 했습니다. 기록에 나오는 성모당의 첫 신심 행사는 샬트르 성 바오로회 수녀님들이 1919년 7월 29일 동굴에서 순례로 하루를 보낸 것입니다. 이후 일제의 감시로 인해 많은 이들이 모여 성모 행사를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1941년부터 성탄 밤 미사도 드리지 못했고, 많은 신부님들이 남산성당에 감금됐으며, 심지어 옥고도 치렀습니다. 성모당에 혼자 와서 기도는 할 수 있어도 공적인 행사는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 직후인 1949년 5월 성모당에서 다시 성모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계산성당에서 성모 성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5월 29일 소년소녀들이 성모당 경내에서 행렬, 성모 성월 노래 찬송, 헌시 낭독, 헌화, 간구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1950년 비오 12세 교황님께서서는 성모 마리아 성년을 선포하셨고, 최덕홍 주교님의 주례로 대구 시내 6개 본당이 모여 성모당 앞에서 ‘마리아의 티 없는 성심께 드리는 봉헌식’을 성대하게 거행했습니다. 이러한 교구의 행사가 ‘성모의 밤’을 만들어 가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1963년 6월 9일 미군 제 7군수기지 사령부 신자들이 와서 야외미사를 드렸고, 1965년 10월 3일 2군 사령부와 1966년 5월 1일 한미 합동 군인 신자들이 ‘성모의 밤’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성모당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발전하여 1973년 5월부터 ‘성모의 밤’이라는 행사를 성모당에서 개최했습니다. 한 달간 성모당에서 시내에 있는 16개 성당과 7개 액션단체와 수도회가 돌아가면서 ‘성모의 밤’을 진행했습니다. 1973년 성모의 밤 행사에는 12,000여 명의 신자들이 참석했고, 250,690원의 현금은 성모당 환경정리비로 사용되었습니다. **필문**

주님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넘어진 이를 일으키시는 주님
주님, 또 다시 넘어집니다.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세상 쾌락에 빠져
당신에게서도 제 자신에게서도
떨어집니다.
부정(不淨)의 심연에 빠진
저를 보소서.

제게 희망을 둔다면,
결코, 이 심연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오나 당신 자비를 생각하면
희망은 끝이 없습니다.
넘어진 이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
점점 깊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주님 저를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은 넘어진 이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기에
제 영혼 주님께 희망을 겁니다.
당신께 신뢰를 드립니다.

- 복자 파올로 주스티니아니(15~16세기) 카말돌리회 수사

지혜의 숲

수용력(收容力)

“저는 배우고 싶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나는 자네가 배울 줄 안다고 생각하지 않네.”

스승이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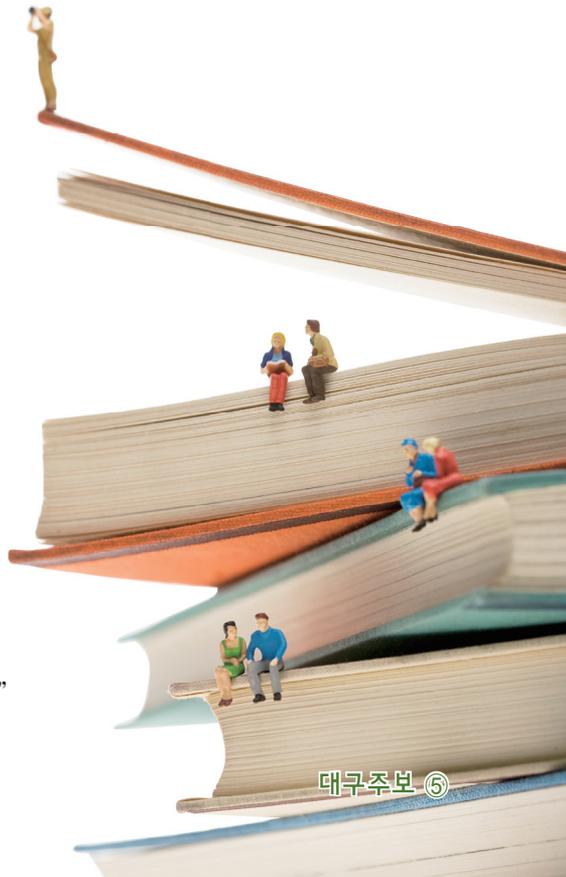
“저에게 배우는 것을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십니까?”

“내가 자네를 가르치게 하도록 배울 수 있겠나?”

어리둥절해진 제자들에게 나중에 스승이 말했습니다.

“가르침은 배움이 있는 곳에서만 이루어진다.

배움은 너희가 스스로에게 무언가를 가르칠 때만 이루어진다.”



오늘의 전례

제1독서 예레 31,7-9 제2독서 히브 5,1-6 복음 마르 10,46-52.

화답송 ◎ 주님이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복음 ◎ 알렐루야. ○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환호송 보여 주셨네. ◎ 알렐루야.

영성체송 당신의 구원에 우리가 환호하며, 하느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리이다.



교구장 동정

10.21(일) _ 동인성당 견진성사
10.25(목) _ 가톨릭학술원 세미나



총대리 동정

10.21(일) _ 경주지역 합동 견진성사
10.27(토) _ 카리타스 본당 사회복지의 날 미사

주교회의 '명도회 장학금' 2019년도 지원 대상자 공모

목적 : 평신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과 연구 지원

부문 : ① 장학금 지원(학부, 석·박사 과정) ② 학술 연구비 지원(천주교 관련 연구)

신청기간 : 10.17(수)~12.17(월)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전자우편(cafl@cbck.or.kr)

문의 : 주교회의 평신도기금운영위원회, 02)460-7533

※ 자세한 내용은 주교회의 홈페이지(www.cbck.or.kr) '알림마당/소식' 참조

「빛」 잡지 표지 '양병주 분도의 묵상사진' 2019년 탁상용 신앙 북캘린더 출시

교구 문화홍보국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19년도 탁상용 신앙 북캘린더를 출시합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탁상용 신앙 북캘린더는 「빛」 잡지 표지를 연재해 온 사진작가 양병주 분도님의 묵상사진 작품을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사이즈와 거치대를 새롭게 디자인하여 더욱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 : 8,000원 (예약기간 내에 선주문하시면 1,000원 할인)

예약기간 : 10.29(월)~11.18(일)

예약 및 문의 : 교구 문화홍보국, 053)250-3046~8

※ 택배비는 별도이나 50권 이상 주문하실 경우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답게 살겠습니다 금주의 실천 사항(평신도위원회 제공)

“말씀을 기억하고 행동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사

2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0월 29일(월) 10:30 범어대성당

김천지역 학교복음화 미사

10월 31일(수) 19:00 평화성당 소강당

대리구

3대리구 카리타스 청소년인권캠프

일시: 2019.1.8(화)~10(목), 청통수련원
대상: 3대리구 본당 중3~고2
마감: 11.23(금) / 참가비: 2만원
문의: 3대리구 사회복지회, 641-3456

성소 | 피정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사제 성소 모임

일시: 11.4(일) 10:00
장소: 서울 돈암동 본부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4번 출구)
문의: (02)924-3048

첫 토요일 성모신심 소피정

일시: 11.3(토)
내용: 10:00 영성특강(문봉한 신부)
11:00 찬양미사, 안수, 고해성사
셔틀: 2호선 영남대역 4번 출구 9:30
문의: 진량성당, 856-7676

고3 피정

일시: 11.17(토)~18(일) 1박 2일
장소: 바틀로교육센터
문의: 783-9817 / (010)9868-9817

해바라기 가을 피정

일시: 11.10(토) 16:00~11(일) 15:00
장소: 부산 성분도은혜의집
대상: 35세 이하 미혼 여성 / 2만원
주최: 올리베타노성베네딕도수녀회
문의: 대건 수녀, (010)8551-3312

교육 | 모집 | 기타

2019 평신도·수도자 신학석사과정 모집

원서접수: 10.29(월)~11.12(월)
학위취득: 논문석사과정 / 교과석사과정
주최: 대구가톨릭대 신학대학원(야간)
문의: 남산동캠퍼스, 660-5111

지역주민을 위한 관절염 순환교육(18_5차)

일시: 11.14(수) 14:00~15:30
장소: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T관
3층 데레사홀 / 문의: 650-4910
주제: 어깨와 무릎관절염의 비수술적 재활치료 / 강사: 재활의학과 박기영 교수

2019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전기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11.5(월)~16(금) 17:00
입학전형: 11.26(월) 14:00(석사과정)
전공: 생명윤리학(임상연구윤리학), 생명문화학 / 문의: (02)2258-7076

2019 전기 대구가톨릭대 대학원생 모집

접수기간: 10.29(월)~11.12(월)
문의: 850-3582(일반), 850-3508(교육), 660-5252(특수) / <http://www.cu.ac.kr>

발성과 합창교실 수강생 모집

일시: 월, 목 19:00 / 목 13:00
장소: 대가대평생교육원(용산역 4번 출구)
문의: 660-5556

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생활영어(화, 목), 바이올린(화)

성가반주(수, 토), 첼로(목, 금)

위치: 교대역 3번 출구 앞
신청: 476-6211

전례생활연구회 월례공부 모임

일시: 11.5(월) 20:00~21:00
장소: 대안성당(중앙로역 4번 출구)
주제: 미사경본 총 지침 이해2
대상: 전례봉사자, 관심있는 신자
문의: (010)3811-2618 / (010)3524-3217

2019년 가톨릭상지대학교 수시2차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수시2차: 11.6(화)~20(화)
문의: 교무입학처, (054)851-3021~3
<http://ipsi.csj.ac.kr>

제주교구 운전기사사도회 제주도 관광

가족, 효도, 단체관광 및 성지
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가능
문의: (064)758-6476 / (010)4566-6476

대구가톨릭치매센터 입소어르신 모집

치매, 중풍 어르신 요양원입니다.
위치: 달성군 논공읍
대상: 장기요양 1~5등급(시설급여)
문의: 615-2141 / 616-2141~2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전문)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문의: (02)764-4741~3
<http://www.holyfacc.or.kr>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 상 운 (안젤로)
송 정 애 (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522-5800 | 010-4508-4328
010-2002-4328

대구연세안과
·백내장수술 ·아이디자인 라식
·노안 수술 ·망막녹내장 검사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의학박사 원장 박중원(소 시 모)
전문의 장주현(비비안나)
☎(053)626-8881~5

U&I
유앤아이 결혼정보
053)795-2211 · 010-6572-2233
신매역 5번 출구 (사월 방향 500m)
제일병원 옆
김 경 임 (아 네 스)

Rex Diamond
보석 전문점 더 렉스
예를, 천연보석, 다이아몬드, 순금바
(목주반자·감사선물·프로포즈 반지)
대표 임 미 순 (마리아)
♥ 교통쪽 동아백화점과 시청 사이 ♥
(동아주차 무료)
☎053)428-7989 | 010-4439-9991
교우님들께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

ANGEL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SM 수맥 **흙집대**
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신문 광고 중
☎1588-5335

www.piumclinic.co.kr
이애현 피음산부인과
여성건강 전문 병원
원장 이애현(크리스티나)
부인과 검사, 갱년기 클리닉
레이저 여성 성형, 비만클리닉
보험공단 자궁경부암검진, 요실금클리닉
상인역 2번출구 하나은행건물 7층 TEL. 053.421.7585

2대 반세기, 건강한 관절, 척추
SINCE 1975
백두병원
어깨 무릎 발목 관절경수술
정형외과 전문의 백두역 이오스영, 배상근 베드로
유천치안센터 옆 T. 425-5919
대구시 달서구 월배로 18(진천동)
대학병원급 3.0T MRI, CT
공단검진 지정병원 / 위, 대장 내시경

† 위령의 날 미사

- 11.2(금) 10:00 교구청 성직자 묘지 (집전: 총대리 장신호 보좌주교)
- 11.2(금) 11:00 군위 묘원 (집전: 교구장 조환길 대주교)
- 11.2(금) 11:00 범물동 묘원 (집전: 교구 사목국장 조현권 신부)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주재용(바오로) 몬시뇰 1975년 11월 1일
- 박병원(필립보) 신부 2002년 11월 3일

행사 | 모임

노년을 위한 토빛 피정

일시: 11.14(수)~15(목)
 장소: 베네딕도영성관(사수동)
 대상: 65세 이상 신자
 마감: 11.4(일) / 신청비: 6만원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250-3077

제18차 영남지역 CPE 가을 세미나

일시: 11.17(토) 9:30~16:00 / 3만원
 장소: 대신학원 대강당 / 마감: 11.10(토)
 주제: 관계 안에서의 갈등이해와 돌봄
 주최: 대구대교구·성바오로CPE센터
 문의: 659-3410 / (010)4143-5508

위령의날 낙산묘원 미사

일시: 11.2(금) 11:00 / 문의: 564-1004

원동수 신부 스테인드 글래스 25년展

일시: 11.7(수) 18:00~18(일)
 장소: 주교좌 범어대성당 드망즈갤러리
 내용: 색유리 융화기법 출간기념전
성전건립기금 마련 김수희 초청 음악회
 일시: 11.16(금) 19:30, 아양아트센터
 티켓: 1장당 후원금 2만5천원
 티켓후원: 대구, 505-10-186009-4
 (재)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문의: 각산성당, 965-0412

효성유치원 개원 90주년 기념 감사 축제

일시: 11.1(목) 17:00
 장소: 주교좌 범어대성당 드망즈홀

2018 추수 감사미사

일시: 11.11(일) 13:00
 장소: 대구성령봉사회관(고령 울막)
 차량: 교구청 대건인쇄출판사 앞 11:30
 문의: (010)9045-0191

가톨릭사진가회 제18회 사진전시회

일시: 11.1(목)~5(월)

장소: 성모당 안익사 앞
 문의: (010)3530-1217

대구가톨릭생활성가협회 찬양축제 '젊은이여 노래하라'

일시: 11.3(토) 19:00
 장소: 주교좌 범어대성당 드망즈홀
 문의: (010)9363-9480

교육 | 모임

파스카 청년성서 모임

단계: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등
 문의: 교구 청년국, 255-1582

채용 | 안내

가톨릭푸름터(미혼모자 시설) 직원 채용

대상: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마감: 11.4(일) / 문의: 764-8537
 서류: <http://www.ggum1004.com>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이인호 / 문의: 253-9550

◎ 2019년 대구주보 광고 신청 안내 ◎

- 사전서류접수: 10.29(월)~11.9(금)
- 제출방법: 문화홍보국 방문 또는 우편
- 주보광고접수: 11.22(목)
- 장소: 대건관 2층 가정복음화국 회의실
- 제출서류: 1. 교적사본 2. 본당신부 추천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광고문안 5. 사회복지 관련 업체는 교구 사회복지국장 신부 추천서 제출
- ※ 광고비 전액 계좌이체 (광고접수일부러 익일까지)

광고접수시간 예고 | 광고접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문화홍보국에서 사전에 진행한 순번추첨결과와 예상접수시간을 광고주들에게 미리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문의: 교구 문화홍보국 (053)250-3047~8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 이 연 재(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 656-9911
 010-2008-2329

가람소방방재(주)
 ◆소방시설점검 ◆소방안전관리대행
 ◆종합정밀점검 ◆소방관련기술교육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전문공사
 대구시 달서구 달서대로 559 이앤씨노보스타워 B108호
 대표전화 0531600-8485~9 HP 010-4245-0507
 대표이사 소방시설관리사 김진석(스테파노)

이상도 신경과
 신경과 / 내과 / 정신건강의학과
 이상도 (프란치스코)
 대한 신경과 학회장
 대한 뇌진동 학회장
 대구 경북치매 연구회 회장 역임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현대백화점 뒤
 ☎ 053)252-0418

김&송
김덕영 성형외과
 대구은행 본점 옆 교보생명 건너편
 한영 아트센터 2층
(053)759-0888
 의학박사 전문의 **김 덕 영** (스테파노)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코), 박필교(율리안나)
 ☎ (053)255-9077
 010-9447-5193

보건복지부 인증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사랑나무의원
 대구시 수성구 화랑로 112-1 (하이마트 만촌점 옆)
 ◆ 말기암 통증/증상 완화
 ◆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 돌봄
 ※재능 및 기타 자원봉사자 상시모집
 원장 전 은 수(가브리엘)
 ☎ 상담/입원 053)217-9500

Seong Seo SOK Internal Medicine
성 서 속 내 과
 건강보험공단건진, 암걸진
위·대장내시경·용종절제술
 한 번에 편안하게!!
 당뇨·고혈압 소화기내시경 원장/전문의 김영섭(베드로)
 성서메가타운 2층 ☎ 586-7572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 7번출구